

## 1) 유 적

### (1) 생활유적

전남지역에서 조사·확인된 주거지(집자리)는 광주 송암동, 영암 장천리, 송광면 대곡리·우산리, 화순 북교리, 보성 척령리가 있으며 아직 발굴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거지가 노출된 곳이 광주 운암동, 장흥 건산리 등이고 이외에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물산포지는 수십 곳에 이른다.

발굴조사된 주거지는 땅을 20~40cm 정도 파고 들어간 움집이며, 그 형태는 직경이 대개 4~5m의 원형·타원형의 주거지로 중앙에 기둥구멍이 2개나 4개 있는 원추형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는 충남 서산군 해미, 부여 송국리, 경남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충남과 전남 등 서남부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원형주거지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일반적인 움집인 수혈주거지와는 그 형태나 내부시설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남을 비롯한 서해안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문화적인 배경과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원형주거지 이외에 모가 둥근 네모꼴(抹角方形) 주거지가 송광면 대곡리에서 발견되었다. 이 형태의 주거지는 원형주거지 다음 단계로 청동기 후기(초기철기시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송광면 대곡리에서는 수십 채의 주거지가 발견되어, 한 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강변에서 고기잡이와 사냥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대한 지식묘를 묘역으로 한 혈연집단이 형성되었으며, 그 집단 안에는 지배자가 있는 사회적인 체제가 이루어져 있었다. 또 이 집단들은 집단간의 연합과 통합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마한사회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으로는 주거지뿐이다. 발굴된 주거지는 영산강 유역에서 영암 장천리, 광주 송암동, 동부지역인 보성강 유역에서 송광면 대곡리·우산리, 곡천, 화순 북교리, 보성 척령리 금평 등이며 전남지역에서 모두 6곳이 조사되었다. 이 주거지의 평면은 원형주거지와 둥근 네모꼴 형태의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원형주거지는 서남해안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같은 형태이다.

#### ① 송광면 대곡리 도롱 주거지

송광면 대곡리 도롱마을 앞의 충적평지에 있는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걸친 대규모 집단취락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유적은 주암댐 수몰지역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국립광주박물관과 서울대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이곳에서는 주거지 이외에 석기제작소, 토기요지, 저장공 등이 발견되어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주거지 상호간의 기능분화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었다.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유구로는 수혈주거지 72기, 소형유구(저장공) 50기, 석기제작소 1개 소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원형이 23기, 방형계통이 47기, 기둥구멍만 있는 것이 2기인데 원형주거지는 중앙에 작업공으로 보이는 구멍이 있고 양옆에 기둥이 각각 있는 형식으로 충남·전남 등 주로 서남해안지역에서 보이는 것들과 같은 형태이다. 두 개의 기둥구멍만 있는 것, 기둥구멍 주위에 2개 또는 4개가 대개 방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 장방형 주거지는 작업공이라든지 기둥구멍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형유구는 저장공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석기제작소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전혀 사

용되지 않은 석기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이는 석기제작과 관련된 석기 공동창고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곳의 주거지들은 평면형태가 원형에서 장방형으로 변천되는 것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민무늬토기 전기에서 말기까지 오랫동안 형성된 대단위 취락지이다. 주거지 형태와 생활상의 변화를 추론해볼 수 있으며, 공동체적 유대에서 형성된 생활터전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대개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에 걸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송광면 우산리 곡천 주거지

곡천 유적은 행정구역상 송광면 우산리 곡천마을의 얇은 구릉상에 위치하며, 밭을 중심으로 유적이 발달되어 있고, 유적 앞으로 광주~별교 간 15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다. 유적은 비교적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앞쪽으로는 조계산(해발 887m)이, 서쪽으로는 천봉산(해발 608.8m)이, 뒤쪽으로는 매치산이 자리잡고 있다. 유적은 지식묘 발굴 때 발견된 것으로 2기가 발굴되었다.

곡천2호 주거지는 직경 290cm의 둥근 평면형태를 가진 것으로 깊이는 13~25cm 사이이고, 주공은 주거지 바깥으로 약 20cm 떨어져 12개가 있다. 바닥은 특별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본래의 단단한 면을 다져 바닥으로 하였다. 출토유물은 민무늬토기의 구연부, 동체부, 저부편들과 공렬토기 구연부편이 다수 출토되었고 석기로는 화살촉 8점과 미완성 석재 1점, 연석 1점이 출토되었다.

곡천3호 주거지는 타원형으로 410×280×10cm의 크기이며, 장축방향은 남동~북서이다. 주공은 모두 4개로 주거지 안에 기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로는 민무늬토기 저부편 2점과 동체편 3점이 나왔을 뿐이다.